

‘호두까기 인형’의 계절...발레 향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의 제136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이 오는 21~23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쌀쌀해지는 이맘때면 공연가에 화두가 되는 작품이 있다.

독일 작가 E.T.A. 호프만의 환상적인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원작으로, 목각인형의 몸짓을 묘사한 '호두까기 인형'이 바로 그것.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한 후, 특유의 예술성을 인정받으면서 국가와 언어를 초월해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해 왔다.

제136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이 오는 21일(오후 7시 30분), 22일(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23일(오후 3시) 총 3일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소녀 클라라(강은혜, 홍주연, 강민지, 공유민)는 크리스마스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는다. 그녀는 꿈속에서 호두까기 인형(박관우, 보그단, 이상규, 박범수)과 함께 생쥐 대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왕자로 변신한 인형과 '눈 나라', '과자의 나라'를 여행한다. 환상과 낭만, 동화적인 서사와 권선징악의 주제 등이 레퍼토리에 걸쳐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원국 안무가가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어 냈다. 원작에서 클라라의 대부이자 마법사 '드로셀마이어'는 아이들을 위해 콜롬비아, 할리퀸, 무어 인형을 춤추게 했지만, 이번 재안무 버전에서는 기존 몸짓 대신 남녀 한 쌍의 무어 인형이 태권도로 대련하는 듯한 장면들

시립발레단, 21~23일 예술의전당 이원국 안무가, 태권도 접목 눈길 차이코프스키 '꽃의 왈츠' 피날레

발레에 접목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매력과 색다른 즐거움을 자아낸다는 계획이다.

이원국은 '한국 최고령 발레리노'라는 수식어를 갖는 발레리노·안무가다. 그동안 유니버설 발레단, 국립발레단 등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약해 왔으며 2001년 모스크바 국제발레콩쿠르 베스트 파르티시상, 2011년 서울시문화상 무용 부문 등을 수상했다.

2막에서도 이색적인 안무가 펼쳐진다. 영미권 재안무 버전에서 종종 볼 수 있던 '마더 진저'와 그의 자녀 '봉봉'은 어린이이들과 여장한 발레리



1막 중 '눈의 나라'

노가 이인삼각으로 표현하거나, 남성 곡에서와 광대 등으로 연출돼 왔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이 장면을 남성 솔리스트들의 '파워' 있는 몸짓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곡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호른, 클라리넷의 아름다운 선율이 기대를 모은다.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김덕기)이 협연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을 비롯해 와이즈발레단, M발레단, 코리아발레스타스 등 전국 유수의 발레단들이 최근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리며 본의 아니게 경쟁자도를 달리고 있다. 그중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이색적인 재안무 작업과 레퍼토리의 변주 등으로 여타 작품과 차별화를 모색했다. 1997년 첫 공연 이래 25년간 누적 관객 수 약 6만 명을 기록해 경쟁력 있어 보인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꿈과 환상, 희망이 가득 담긴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발레'를 매개로 전한다"며 "재안무를 거쳐 독창성을 가미한 이번 공연을 가족들과 함께 감상하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티켓링크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고려인 마을 '약장수와 약속의 땅'

이매리 작가, 10일까지 서울 갤러리 보안1942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광주 고려인마을(광산구 월곡동)에 갈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 광주 속의 또 다른 작은 '도시'가 있다는 그런 느낌. 어쩌면 그것은 '갑'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만일 수도 있다. 고려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은 오히려 나일 수 있다.

이역만리 동토의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들은 공동체를 만들었다. 조상들의 강제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슬픔, 아픔을 딛고 만든 고려인마을은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다.

이들에게 고려인마을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을까. 미디어와 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품 활동을 펼쳐온 이매리 작가가 고려인마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10일까지 서울 갤러리 보안1942 아트스페이스 보안2, 3에서 열리는 '약장수와 약속의 땅'에서다.

이번 기획전은 임종은 독립큐레이터가 기획을 맡았으며 이매리 작가 외에도 노순택, 리정옥·아치카와·정리애·미치코 츠치야·치야키 하이바라(팀), 벤자 크라이스트, 아이린 아그리바나, 안유리, 이부록, 임수영, 정소영 총 9팀(작가)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전 주제 '약장수와 약속의 땅'은 오늘의 지구적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혹자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양상은 점점 약자를 배양

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들어설 틈이 없다. 예전의 문명과 종교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 반면, 오늘의 세계에선 공동화 된 자본주의가 약장수처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신작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을 통해 이렇게 질문한다. 고려인들이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 과연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편입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작품에는 이주민들의 강제 역사와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고단한 여정이 담겨 있다.

특히 음식을 비롯한 섭생의 문제를 비롯해 이곳 광주에서의 자치회 등 공동체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인류학적인 관점과 작가적인 시각을 투영해 복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번 작품을 위해 작가는 직접 카자흐스탄에까지 방문해 고려인들의 수난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이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동포이면서도 이민자인 고려인들에게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 숙고했다"며 "인류학적, 인문학적, 역사학적 관점을 투영해 나름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작가는 회화를 전공 후 다양한 형식을 매개로 작업 중이며 수년 동안 자기 존재와 실존에 대한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년 비엔날레 파빌리온 광주 전역서 펼쳐진다

2024년 광주비엔날레 30주년 30여개 국가 참여 역대 최대

내년 9월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설 30주년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 개국이 참여 예정인 가운데, 추가로 협의 중인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024년 비엔날레는 파빌리온을 확대해 광주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빌리온 참가국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등이다. 추가로 몇 개 국가가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는 물론 서구와 남미 국가 등 참여로 국가별 동시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14회 광주비엔날레 당시의 캐나다 파빌리온 모습. <이강하 미술관 제공>

참여가 확정된 해외 문화예술 기관은 오스트리아의 '필레아스', 카타르 국립 박물관, 독일의 '플랫폼 뮌헨',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폴란드의 '아담 미츠키에비츠 문화원' 등이다.

파빌리온은 양림동, 동명동 등지를 포함해 광주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광주 역사와 동시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광주 파빌리온도 신

대 광주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파빌리온은 해외 문화기관의 작가와 작품을 선보이는 국가 간 문화교류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며 "내년은 창설 3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최대 규모의 파빌리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
8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풍부한 하모니카 음색으로 대중의 귀를 매료시킨 하모니카리스트가 광주를 찾은 예정이다. 화제다.

광주 북구문화센터가 연말 특별 기획공연으로 '박종성 하모니카 리사이틀'을 마련했다.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경희대 음악과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한 박종성은 2008년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서 3개 부문 3관왕을 차지했다. 독일의 세계하모니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솔로 부문 우승을 차지, 이듬해 '하모니카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독일의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트레블로 솔로 부문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2015년부터는 3년 간 소프라노 조수미 전국투어 콘서트에 솔리스트로 협연했다.

공연은 피아졸라 탱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겨울', 페데르세 '여인의 그림', 미하일 스피바코프스키 '하모니카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영화음악의 거장으로 알려진 엔

리오 모리코네를 초점화한 '엔리오 모리코네를 추억하며'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대중가요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이문세 '광화문 연가'도 들을 수 있다. 민요 '새야새야'와 자작곡 '흔적'도 레퍼토리에 있다.

협연자로 나서는 피아니스트 조영훈은 서울예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헝가리 국립 리스트악아카데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리스트협회 콩쿠르 1위, 오사카 국제 음악콩쿠르(일본) 3위, 바르톡 국제 피아노 콩쿠르(헝가리) 2위와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북구문화센터팀 문나리는 "하모니카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악기지만, '전문 연주자'의 리사이틀은 자주 마련되지 않는다"며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풍부한 음색의 하모니카 연주를 감상하며 온기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